



김용래 교수
한국불교 도박 36選

지극한 佛心 담아 목판에 아로새기니...

14. 문화국가의 자긍심, 고려대장경

문화국가로서 고려의 모습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상징물은 두 차례에 걸쳐 조성된 대장경이다. 이는 고려청자나 고려불화의 화려하고 그윽한 아름다움과 함께 고려를 빛낸 역사적 기념물이자 자긍심의 소산이었다. 당시 동아시아 세계에서 목판 대장경의 조성은 대단한 문화적, 사상적 성취였고 중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 사이에 보다 방대하고 우수한 대장경을 만들기 위한 치열한 경쟁이 펼쳐졌다. 고려대장경은 그 중심에 있었고 동아시아 세계에서 유통되던 거의 모든 불교 경전과 문헌을 집성하고 그것을 다시 확산시키는데 크게 공헌하였다. 이는 고려의 문화적 역량과 자부심을 만천하에 과시한 것으로서, 당시뿐 아니라 근대기까지도 다른 대장경의 표준이자 모델이 되었다.

대장경은 불교 경율론의 삼장을 집대성한 것으로 고려에서는 두 차례에 걸쳐 만들어졌기에 이를 각각 초조대장경, 재조대장경이라고 부른다. 초조대장경은 1011년 거란의 침공으로 개경이 함락되고 현종이 지방으로 피난을 간 상황에서 거란을 물리치기 위한 발원을 담아 조성을 시작하였다. 대장경의 판각은 1029년에 1차 완성되었고 이를 축하하기 위해 국왕의 주관 하에 대규모 강경도량이 열리기도 했다. 이때의 대장경은 971년에 나온 동아시아 최초의 대장경인 송의 개보장을 모범로 하였다. 개보장은 지승에 의해 730년에 만들어진 불전 목록 <개원석교목>에 의거해 당시 수집 가능했던 1,078종, 5,048권의 경서를 집성한 것이다. 고려는 송에 여러 차례 사신을 보내 대장경 인본을 구해 왔고 법상종 종찰 현화사의 창건 때도 대장경 한 짝을 받아와 봉안하였다. 하지만 이후 송에서 대장경에 추가된 책들을 다시 모으고 고려에서 새로 발견된 경전을 추가하였고 거란이 세운 요에서 만든 대장경을 입수하여 1063년부터 1087년까지 판각을 다시 하여 총 6천여 권에 이르는 방대한 양으로 완성되었다.

당시 송과 요는 적대적 관계였고 서적 교류가 금지된 상황이었지만, 고려는 양측의 불서를 모두 입수하여 동아시아에서 가장 많은 양을 집성한 것이었다. 완성된 대장경 판목은 개경 인근 흥왕사의 대장전에 봉안되었고 이후 안전을 위해 대구 팔공산의 부인사로 옮겨져 보관되었다.

완성된 형태의 초조대장경이 나오면서 불교 교학 연구가 더욱 활성화되었고 교종의 주류 종단인 화엄종이나 법상종에서는 화엄과 유식 관련 문헌들을 별도로 정리, 간행하고 그것을 연찬하는 노력을 병행하였다. 또한 경론의 도입을 목적으로 한 중국 유학이 크게 줄었고 더 이상 중국의 대장경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어 문화적 자긍심을 높일 수 있었다.

한편 초조대장경의 조성과 비슷한 시기에 대각국사 의천(1055~1101)은 송에서 경전 외의 논소 3천여 권을 수집하여 귀국한 후 요와 일본의 문헌을 추가하고 고려에 현존하던 논소들을 망라하여 교장을 간행하였다.

교장은 경, 율, 론으로 이루어진 대장경과는 달리 경전과 율장에 대한 주석서인 논소만을 모은 것으로 대장경에 대한 해설서의 의미를 가진다. 이처럼 동아시아의 역대 논소만을 따로 모아 집대성한 것은 의

천의 교장 간행이 최초로서 이는 당시 고려불교의 교학 이해가 상당한 수준에 도달했음을 보여준다.

의천은 흥왕사에 교장도감을 설치하여 교장을 간행하였는데 주석서 가운데는 유식학과 관련된 것이 많았기 때문에 법상종 승려들도 다수 작업에 참여하였다. 이때 만든 교장의 목록인 <신편제종교장총록> 3권이 현존하는데, 여기에는 총 1,010종 4,850여 권의 책명이 기록되어 있다. 이를 통해 당시 동아시아에서 유통되던 불교 주석서의 실태를 파악할 수 있다. 교장을 집성한 의천의 저술 중에는 화엄종 문헌을 발췌한 <원종문류> 22권 중 3권, 고승의 비문을 모은 <석원사림> 250권 중 5권이 현재 전하고 있다.

재조대장경은 흔히 팔만대장경, 고려대장경으로 알려져 있으며 2007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해인사의 고려대장경판을 가리킨다. 세계기록유산으로 팽창을 거듭하던 몽골군의 침입을 받아 1232년 고려 정부는 강화도로 천도하였는데, 고려의 전국토를 유린하던 몽골군에 의해 부인사에 보관되어 있던 초조대장경 판목이 불에 탔다. 그리하여 1237

고려시대 초조·재조대장경 조성

초조는 몽고군 침입으로 전소돼

환란 극복 기원담아 재조 만들어

재조, '팔만대장경' 명칭으로 전승

현재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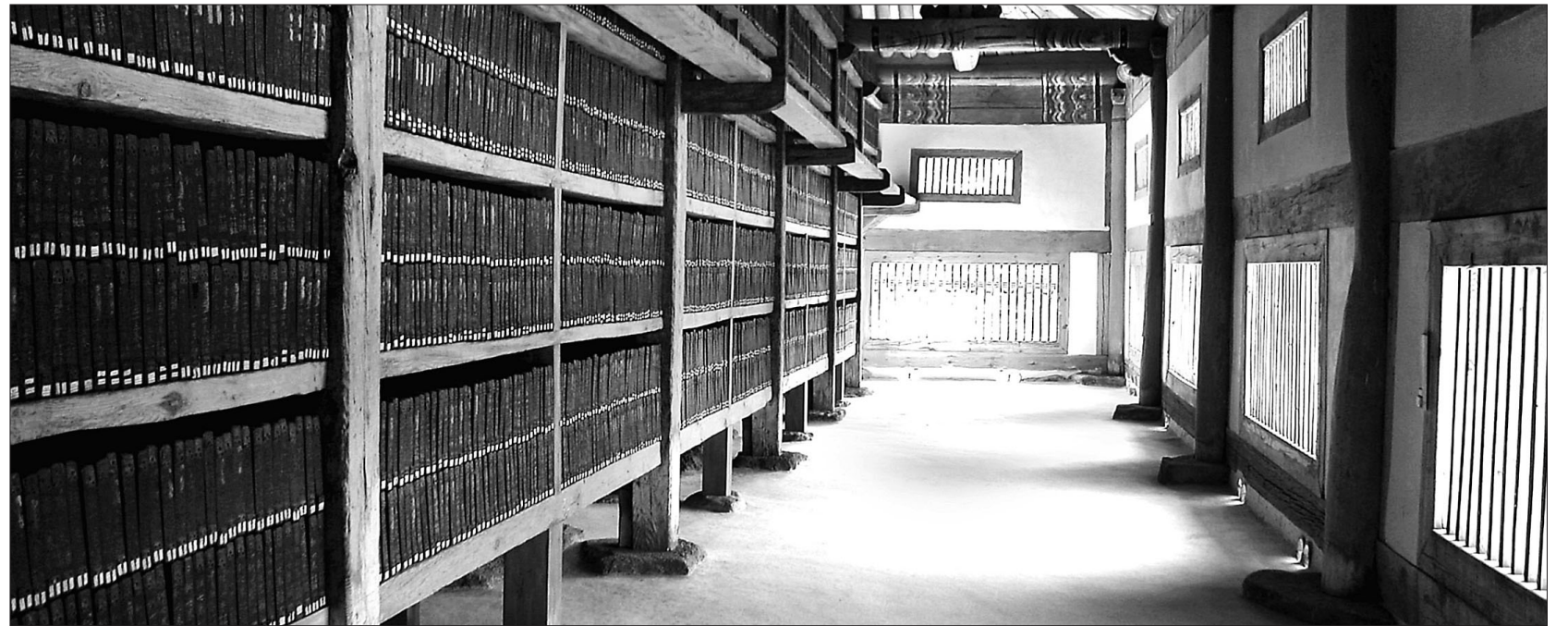
불교 경전 집성·전파 지대한 공헌

근대기까지 다른 대장경의 표준

년부터 국난을 극복하기 위한 발원으로 대장경 조성 사업이 다시 시작되었다. 문인 관료였던 이규보가 국왕을 대신해 쓴 '대장각판공신기공문'에는 초조대장경의 소실과 재조대장경의 판각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고려 국왕은 태자와 문무백관 등과 함께 재물보살과 제석 및 33천의 호법영관에게 아뢰나니. ... 부인사에 소장된 대장경이란 남김없이 불태워졌습니다. 여러 해에 걸쳐서 이룬 공적이 허우아침에 재가 되어버렸으니 이런 큰 보배가 없어졌는데 어찌 일이 힘들다고 다시 만드는 것을 꺼리겠습니까? 이제 국왕과 관료들이 함께 서원을 발하여 담당 관청을 두고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 어찌 그제에만 거란 군사가 스스로 물러가고 지금의 달단(몽골)은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 원하옵건대 부처님과 여러 친신들은 이 간곡한 정성을 굽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신통한 힘을 빌려주어 오랑캐들을 멀리 쫓아내어 다시는 우리 국토를 짓밟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전쟁이 그쳐서 나라가 편안하게 되고 국운이 만세토록 이어지게 해 주십시오."

재조대장경의 조성을 담당한 대장도감의 분사는 정부가 있던 강화도에 설치되어 계획의 수립과 추



해인사 장경판전에 수장된 팔만대장경의 모습. 몽고군의 침입으로 전소된 초조대장경을 대신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환란을 극복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근대기까지 동아시아 대장경의 표준이었던 팔만대장경은 현재 국보 32호이자 유네스코 지정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돼 있다.

진, 경비조달 등을 총괄하였고 경상도 남해에 분사가 설치되어 이곳을 중심으로 실제 판각작업이 진행되었다. 남쪽 끝에 있는 남해는 몽골군의 침략으로부터 비교적 안전한 장소였고 지리산이 멀지 않아 목재의 조달에 유리하였으며 바닷물로 목판을 적시고 말려서 단단히 만들 수 있었다. 또한 무인 집권 세력인 최씨 가문의 경제적 기반이 인근의 진주에 있어서 자금조달에도 용이하였다. 무엇보다 당시 집권자 최이의 처남이자 정계의 2인자였던 하동지역 호족 출신 정안이 1241년에 남해로 내려가 판각 경비를 부담하였고, 그에 의해 대장경의 절반가량이 판각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1237년에 시작된 재조대장경 조성은 1248년에 판각 작업이 끝났고 1251년에는 완성을 기념하는 경축 의식이 치러졌다. 이때 만들어진 대장경은 총 1,496종, 6,568권에 달하며 경판의 수는 81,137판, 16여만 면이었다.

팔만대장경이란 명칭은 8만이 넘는 경판 수에서 나왔다는 설이 일반적이며 8만 4천 번뇌를 없애는 8만 4천 법문을 수록하였기 때문이라는 주장도 있다. 재조대장경은 전자본 순서로 천황에서 동함까지 합쳐 보관되었고 수록된 내역은 대장목록에 기재되어 있다. 입장된 책들을 유형별로 보면 경, 율, 론이 대부분이지만 고승 전기류 등의 불교사서, 역대 대장경의 목록과 음의 등도 들어가 있다.

대장경 수록 전적의 교감과 목록 작성은 화엄종 승통이었던 수기가 주도하였는데 거의 완벽한 교정과 내용으로 유명하다. 수기의 교정 내용을 상세히 기록한 <교정별록>에서는 저본으로 삼은 송본과 요본, 고려의 초조대장경 등을 비교하여 차이점을 상세히 교감하고 엄밀히 판정한 모습을 볼 수 있다. 또한 이는 현재 인쇄본 일부만 전하는 송의 개보장이나 요의 거란장을 이해하는데도 매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대장도감에서는 대장경 조성과 함께 선, 화엄 등과 관련된 서적을 추가로 판각하였는데 <중도가>, <중경록>, <조당집>, <선문염송>, <금강삼매경론>, <법계도원통기> 등이 부유판의 대표적인 책들

이다. 이는 대장경 판각을 주도한 화엄종과 조계종 수선사 계통 승려들이 자신들이 필요에 의해 제작한 것으로 보인다.

재조대장경은 조선 초인 1398년 강화도 선원사에서 서울의 지전사로 옮겨다가 현재 소장처인 해인사로 다시 이전되어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장경판전에 봉안되었다. 재조대장경의 인쇄본은 고려 말부터 일본에 전해졌는데, 일본 측은 왜구를 단속하는 데가로 대장경 인본을 달라는 요청을 끊임없이 하였다. 조선 초에는 송유역불 정책을 시행함에 따라 대장경의 경판 자체를 일본에 보내달라는 요구도 있었다.

경판은 보내지 않았지만 조선 정부는 일본과의 선린 관계를 위해 대장경의 인출본을 주었고 국내에 있던 송판이나 원판 대장경까지도 일본에 보내주었다. 고려 말의 대학자 목은 이색이 돌아가신 선친 이곡의 발원에 따라 1381년에 찍어서 여주 신륵사에 보관하고 있던 대장경 한 짝을, 1414년에 태종이 일본국왕에게 보낸 것이 대장경 청구에 대한 답례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세종대인 1458년에는 고승 심미, 수미 등으로 하여금 대장경을 50부 인출하게 하였는데, 이 또한 일본에 대장경을 많이 보내 해인사의 판목 외에는 대장경이 없다는 이유에서 시작된 일이다.

임진왜란 때 일본군은 의승장 사병 유정이 거점으로 삼았던 해인사의 대장경 판목을 가져가지 못했는데, 앞서 입수했던 재조대장경 인출본에 의거하여 1613년에 <대장목록> 3권이 나왔다. 그리고 다음 해인 1614년부터 1624년까지 대장경을 목판으로 간행하였는데 현재 134부 1,126첩이 남아있으며 고려 재조대장경의 간기 형식과 판식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 이후 1669년부터 1681년까지 명의 만력판을 번각한 황백판대장경을 만들었는데, 내용상의 오류가 많아서 1710년에 인장이 이를 다시 재조대장경과 대교해 <여장대교록> 100권을 펴내기도 했다. 이는 고려대장경의 우수성을 다시 한 번 입증한 사례로서, 근대기에도 재조대장경은 불서 집성과 간행에 있어 중요한 전거이자 바로미터가 되었다.

재조대장경은 목판 전체가 남아있는 현존하는 가

장 오래된 대장경이다. 또한 엄정한 교감을 거친 결과 내용의 정확도가 매우 뛰어나 근대기 일본의 대장경 조성에서도 주요 저본이 되었던 것이다. 19세기 말 도쿄 증상사의 고려대장경을 대본으로 하여 축쇄장경이 나왔고 이후 만속장경이나 신수대장경이 만들어질 때도 저본과 대조본으로 활용되었다.

도쿄제대 인도철학과의 다카쿠스 준지로가 주도하여 1920년대에 나온 신수대장경 100권은 현재까지도 세계학계의 표준 대장경으로 쓰이고 있고 검색이 가능한 웹사이트가 구축되어 운영되고 있다. 고려대장경이 차지하던 왕좌를 100년 전부터 신수대장경에 빼앗긴 것인데, 이 분야의 주도권을 되찾아 다시 선도할 수 있는 새로운 한국대장경의 조성이 필요한 실정이다.

고려대장경에 대한 연구는 일본인 학자 세키노 다다시가 1902년에 해인사 대장경판을 조사, 보고한 후에 활발히 이루어졌다. 일본에서는 그 이전에 재조대장경의 판목이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다가 전체가 남아있고 또 다수의 부유판도 현존한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고 한다. 특히 이듬해 전하던 경전과 불서들 중 선종 역사서인 <조당집>처럼 처음 실물이 확인된 것도 있어서 학계의 큰 주목을 받았다. 관련 연구 중에서 오야 토쿠조의 <고려속장조고>(1947)는 의천의 교장 편찬을 중심으로 당시 동아시아에서 유통되던 불교문헌을 구체적으로 다룬 성과로 유명하다. 한편 불타 없어진 것으로 알려졌던 초조대장경도 일부가 전해져왔는데, 현재 일본 교토의 남선사, 대마도 역사박물관, 한국의 성암고서박물관, 호림박물관, 호암미술관 등에 <대만야경>을 비롯한 약 2,600여 권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고려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불교기록문화의 정수인 대장경을 조성하여, 문화국가로서의 높은 위상과 긍지를 대내외에 과시할 수 있었다. 이는 동아시아의 불서 유통과 불교의 사상적 발전을 크게 기여한 것으로 한국이 자랑할 수 있는 세계적인 문화유산이기도 하다.

불자의 긍지 · 신행의 기쁨

현대불교신문사 전국 지사 안내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에
앞장서 온 현대불교신문

보다 편리한 구독신청 ·
광고계약 · 기사제보...
연락주십시오! 달려가겠습니다.

지 사 명	지사장명	연 락 처
대 구 지 사	손 문 철	053)768-8008 / 010-2813-8008
광주전남지사	양 행 선	062)512-5003 / 010-2629-1508
전 북 지 사	조 동 제	063)910-8977 / 010-8642-7733
영 주 지 국	박 영 애	054)634-3429 / 010-9373-3778
경남 남부지사	청운스님	055)746-9778 / 011-870-0021

KBS 과학카페 박현숙 원장 출연 (2010. 2. 6)

이강욱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질식법

동충하초는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숙면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기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식을 하더라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 체중은 줄어도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록원월빙 02)523-0708 박현숙 원장
인터넷 검색창에서 「초록원월빙」을 치세요.

영남범패학인모집

본 원에서는 영남범패의 계승과 보존을 위하여 뜻을 같이 할 제 15기 학인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동참바랍니다.

아 래

- ◆개강일시 : 2015년 11월 16일 <월요일> 오후 3시
- ◆교육장소 : 달전사 (함안군 칠원읍 유원길 778)
- ◆수 강 일 : 매주 월요일 오후 3시 ~ 6시
- ◆교육기간 : 6개월 과정
- ◆교육내용 : ① 상응의식 및 재의식 ② 사물다루는 법
- ◆수강자격 : 사발염의한 출가승려에 한 함
- ◆수 강 료 : 월 10만원 <교재비 별도>
- ◆준 비 물 : 필기도구 및 녹음기
- ◆문의전화 : 055)587-8419
- ◆카페안내 : Daum에서 <영남범패불음원>을 검색해 보세요.

사) 대한불교불음원 원장 원명 합장